
서대문구 먹거리정책 간담회

<간담회 개요>

- ▶ 명 칭 : 서대문구 먹거리정책 간담회
- ▶ 일 시 : 2021. 11.5.(금) 11:00~12:10
- ▶ 장 소 : 서대문구의회 의정연구실
- ▶ 참 석 자 : 14명
 - 간담회 주재 : 차승연 의원
 - 참여 위원 : 8명
 - 참석 부서 : 5명(사회적경제과)

회 의 록 [요약]

(11:00 간담회 시작)

(위원 1) 먹거리위원장 한○○임. 차○○ 의원의 발의로 먹거리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위원회 출범된지 1년째임. 푸드플랜의 이해와 통합지원센터 경과보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음.

(차○○ 의원) 꼭 필요한 의견이 공유되었으면 좋겠음. 먹거리 정책 관련 궁금한 부분을 편안하게 이야기 하고, 먹거리 정책이 어떻게 하면 더 잘 될지 논의하는 자리로 서대문구 먹거리 조례와 먹거리 정책이 다른 곳보다 앞서가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간담회에 임했으면 함.

(사회적경제과장) 먹거리위원회의 여러 위원들이 활발히 활동해서 타구보다 먹거리정책이 앞서 나가는 것이 기쁨. 서대문 먹거리 정책을 위해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음

----- (참석인원 소개, 인사말) -----

(위원 1) 먹거리위원회 활성화에 감사함. 먹거리 종합전략, 중간지원 조직이 많은 구가 없음. 공공급식 센터장에게도 감사함. 먹거리 지원센터 건립 경과보고를 먼저 들어보길 제안함.

(사회적경제과장)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커뮤니티 키친 시설관련 북가좌동 은가어린이집 조성 계획이 아동 전용 시설 조성으로 사회적경제과에서 아동청소년과로 업무가 이관됨.

(차○○ 의원) 원래 은가 어린이집에 키친 시설을 만들려고 했는데 인근 다른 빌라 매입으로 은가 어린이집을 새로 조성하며, 은가 어린이집 자리에 기존 조성 예정이었던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커뮤니티 키친 시설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음. 북아현동 마을 밥상처럼 가재울 홍은권에 키친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먹거리통합지원 센터가 새로 신축시 TF팀 운영, 인력 채용 등 단계적 선정이 필요함.

(위원 1) 2020.6. 먹거리위원회 위촉 후 푸드플랜 계획, 공청회, TF팀 운영을 통해 통합지원센터는 센터장 포함 4명의 인력 충원과 센터 공간은 은가어린이집으로 결정. 내년 4월에 건립예정 이었음. 현재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장소가 없어진 것임. 센터를 거점으로 모든 먹거리 커뮤니티, 푸드플랜 기반. 향후 센터를 어떻게 할지 궁금한 점 질문 요청해주시기 바람.

(위원 2) 푸드플랜의 상징성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임. 1년 이상 논의되고 있던 것이 어

느날 갑자기 시설이 바뀌었다는게 이해가 안됨. 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위원 1) 건물에 대해서는 향후 대책이 중요함. 과정보다는 향후 계획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음.

(위원 3) 결정 사항에 대해 늦게 알았음. 먹거리위원회가 어떻게 해야할지 방향을 모르겠음. 왜 이런 결정이 났는지 궁금함.

(위원 4) 공간의 필요성은 중요함. 앞으로 좀 더 좋은 장소로 시작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임.

(위원 5) 먹거리 위원회 운영은 1차적으로 행정과 위원회의 논의 및 원칙 마련이 필요했으나 부족했음. 지원센터 설립 및 구성, 위원들의 의견 수렴, 원칙이 정해져야 함. 소통의 미진함이 있었음. 공간은 접근성이 중요함. 공간의 접근성에 차후 합리적 고려가 필요함.

(위원 6) 푸드플랜 전반이 위축될 수 있으나 좌초는 아님. 서울시 최초로 조례가 제정되었고 내용도 훌륭함. 위원회 활성화로 실행기구인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현실 조건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계획과 전략이 필요. 공간 전략이 포함되어야 함. 앞으로 어떤 공간에 어떤 내용으로 종합적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의 수립이 필요함. 행정기구가 예산담보 및 지원에 대해 생각이 필요함.

(위원 1) 기반조성 추진 계획은 나와 있음. 기반 조성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한 대안이 필요함.

(위원 12) 앞으로의 의지가 중요함. 민관협치가 잘 된다고 하는데, 민이 소외된 느낌을 지울 수 없음. 중장기 로드맵이 있는가가 중요함. 빨리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의 실행이 필요함. 당장 부서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어떤 생각, 대안이 있는지 궁금함.

(위원 9)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가 먹거리전략팀 주요 업무임.

(위원 1) 기반 구축이 중요함. 그안에 먹거리지원센터가 들어가 있음. 붐뜨게 된 상황에서 향후 대책이 필요함.

(사회적경제과장) 설계부터 참여했는데, 논의과정에서 아동청소년과로 이관되어 부서장으로 안타까움. 건물매입 등 아직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음. 기반 시설이 계획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어 아쉬움. 향후 건물이 나올시 위원들 의견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음. 심도있게 센터가 기반을 다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음.

(위원 1) 25개구 중 최초로 도시형 푸드플랜을 시행했고, 기후환경과 먹거리는 함께 가

야하고 이슈화되고 있음. 푸드플랜 계획을 서대문의 특화사업화할 필요가 있음.

(차○○ 의원) 무역용어 중 레친이라고 있음. 역진하면 안된다는 뜻임. 정책, 협약, 약속이 뒤로 가면 안됨. 의지의 문제임. 의지의 문제가 얼마나 세계 반영이 되는지가 중요함. 공간을 적극적으로 찾는 노력이 필요함. 적극성을 발현해야 1단계가 끝나고 2단계의 논의가 가능함. 북가좌2동 주민센터 건립시 기존 북가좌2동 주민센터 공간도 남고, KT 일부 기부체납 공간, 천연동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공간이 없는 게 아님. 먹거리 푸드플랜에 대한 지속적 관심이 필요함. 위원회 운영 방안이 중요함. 먹거리위원회 설계시 민간 거버넌스, 협치 형태, 소통이 있어야 함. 공간이 부족한 것은 아닌 것 같으며 기존 계획시 4명에서 추가 인원 충원이 필요함. 도시농업은 먹거리 전략팀에서 적극적으로 수행하였으면 좋겠음.

(위원 2) 먹거리위원회에 기대를 가지고 참여하여, 샘플조사 2개 지역을 조정위원회에 보고, 예산지원 필요하다고 건의하였으나 현재 예산이 없고 위원회 역할이 아닌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아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위원 1) 도농교류 동별 조사 예산에 대한 계획은 연초에 수립. 실무조정위원회가 아닌 다른 통로를 말씀드린 것임.

(차○○ 의원) 예산은 경직되어 있음. 쉽게 만들어지기 어려우며 위원회 예산은 회의 정도의 예산이 대부분임. 예산의 필요성은 팀의 사업예산, 센터의 사업예산으로 잡을 수 있도록 사업 계획 작성이 필요하고, 예산 편성시 논의가 필요함.

(위원 5) 실무조정위원회는 분과제안에 대한 활동을 하는데, 분과별 활동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전체위원 의견이 필요함. 각 분과마다 사업을 협의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함. 기본운영 원칙 수립이 필요함.

(위원 12) 일에는 공간과 조직이 중요함. 기부체납 공간 등 나올 가능성이 있는 공간 물색하여 적극적 추진이 필요함. 조직 신설이 얼마 안 되어 외부에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음. 묶어서 하나의 큰 스토리를 만들 필요가 있음. 먹거리전략팀 중장기 로드맵이 공간만이 아니라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함.

(차○○ 의원) 공간리스트는 금방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님. 남·북가좌동 외에도 적극적 공간 제안이 필요함. 이번 예산 수립에는 어려움. 적어도 내년 예산 심의 전에 부서 협의가 필요함.

(위원 1) 적극적으로 공간에 대한 부분을 찾아야함. 행정에서도 다각적으로 노력 요망. 함께 책임이 있음. 지금이라도 중요성 인식하여 단기적으로 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커뮤니티 키친 시설과 별도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심도있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음.

(차○○ 의원) 다른 지역에 비해 앞서가는 지역임을 감안하여 먹거리센터, 관계부서에서 잘하는 부분은 격려가 필요함. 민관이 함께 힘을 합쳐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12:10 간담회 종료)